

2. 나와 로타리 잡지와와의 특별한 인연

‘獎學金 400億 원突破’는 로타리코리아 협조 덕분!

金泰麟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 이사장(3640 · 서울永登浦RC)



30년 전 1973년 2월 26일 한국로타리 장학문화재단이 朴東奎 초대 이사장의 주선으로 발족할 때 겨우 1,000만 원, 정확하게는 1,020만 원의 기금(基金)을 모았습니다.

그후 올해 창립 30주년에 이르기까지 장학기금은 전국 회원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확충에 확충을 거듭하여 마침내 지난 7월 2일자로 400억 원을 돌파하는 역사적 기록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장학재단은 무려 2만 3백 명 장학생들에게 300억 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불하는 큰 일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0억 원의 시재(時在)를 보유하게 된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오늘에 이르는 크나큰 업적이 이루어진 것은 40년 전에 창간 발족한 ‘로타리코리아’ 잡지의 혁혁한 협조에 크게 힘입었음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4만 회원의 봉사 의식과 로타리지식의 선도역할을 꾸준히 이어온 로타리코리아 잡지없이 오늘의 장학문화재단 실적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재단이사장 뿐 아니라 그동안 재단에 기여해온 많은 로타리안들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좋은 과보(果報)는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인연(因緣)을 심음으로써 얻어지고, 나쁜 과보(果報) 또한 나쁜 인연을 심었기 때문에 얻는 결과입니다. 농사짓는 것과도 같아서 어떤 것을 거둬들이고 싶다면 반드시 그러한 씨앗을 심어 키워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이치(理致)’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현재는 과거의 결과요 미래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현세의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보상하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고 성현(聖賢)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자는 받는 자보다 복을 받는다는 말과 같이, 우리들이 힘을 다해서 인색함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생활은, 우리가 베푸는 사랑이, 곧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남이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일들을, 내가 먼저 남에게 해주는 일로, 큰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초아의 봉사’는 우리 삶의 황금률입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서 못하기 보다는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어함으로서 어렵게 되는 일이 많음을 알고 서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힘써 해내는 우리가 됩시다.

로타리안이 되면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친구의 권유로 로타리안이 된 지 20여년, 보다 높은 인격을 갖추려고, 더 훌륭한 도덕적 수준을 구현해 보려고 국내외에서 봉사의 기회를 찾는 일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기에 볼 수 있는 것이며, 발이 있어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이 있기 때문에 걸을 수 있는 것이라 한 것처럼 로타리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로타리코리아誌가 있기에 장학재단이 더욱 성열(成熟)할 수 있었음을 절감합니다. 앞으로 로타리코리아는 더욱 ‘밝은 등대(燈臺)’ 되어 주시고, 한국로타리 안에서 ‘소금’ 되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2. 나와 로타리 잡지와와 특별한 인연

못다한 아쉬움 로타리코리아지 봉사로 위로받다



任孝淳
3690 전총재 · 高陽RC

세상은 넓고, 열린 길도 많다.
그 많은 여러 갈래 길을 모두 걸어갈 수는 없다.

누구나 오로지 자기의 길이 있을 뿐이다.
자기의 힘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것 그 것이 인생이며 의미있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로타리안으로서 로타리 활동이 삶의 전부인 양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얻은 것도 많으나 그 가운데 로타리코리아지에 열정을 갖고 참여하여 봉사했다.

로타리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그 얻은 것을 보다 유익하게 많은 로타리안들에게 귀한 지식·정보지로 전달하여 주려는 그 모습에 늘 감사함을 느낀다.

1997년 11월, IMF라는 경제한파로 인하여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로타리 활동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당시 지구총재로서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했으나 나래를 펴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되어 늘 마음에 빛으로 남아있었다.

그 후 지도자로서의 못다한 아쉬움과 미련을 로타리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을 늘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한 것이 인연이 되어, 임기를 마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로타리코리아에 시간을 내어 부족하지만 봉사하고 있는 것은 남다른 애정과 관심때문이었다.

6년 여 동안 로타리코리아 위원회 위원 및 상임위원으로서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에 회의에 참석했다.

다음달 잡지 제작 편집에 관한 회의와 보다 더 생산적인 로타리코리아지를 만들기 위하여, 운영개선 소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등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늘 열정을 갖고 일한 것이 나에게는 나름대로의 큰 보람이었다.

특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전국회원 명부를 제작하여 지구·클럽·직업별로 분류하여 회원간에 정보와 직업에 대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받으며 직업동호회를 조직하며 45,000여 로타리 회원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회원 명부가 로타리안들이 값있게 활용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

더욱이 40여 년 동안 섬기던 교회(종교교회)가 로타리회관에서 100m 거리에 인접해 있어 이곳은 나에게 늘상 왕래하는 가까운 곳이기에 또한 감사한 일이다.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멋진 내일을 바라보며 로타리코리아지는 창간 40년을 기회로 로타리의 선명한 꿈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혼자서는 어려울 것이다.
백짓장도 함께 맞들 듯 꿈도 여럿이 함께 꾸어야 현실이 된다.

함께 수고한 상임위원 여러분과 여러 직원들에게도 수고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싶다.

로타리코리아지에 실린
Bomar 전 RI회장 기고문의 감동

朴鍾滿
3730 총재 · 原州RC

1975년, 그러니까 28년 전에 나는 로타리인들이 하는 일이 좋아서 로타리에 입회했습니다.

그래서 주회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각종 행사와 봉사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로타리가 싫어지기 시작해 주회는 물론이고 각종 다른 로타리 행사에도 잘 참석하지 않고, 탈회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회에 참석해봐야 회원간에 우정도 없어 왕따당한 것 같아 소외감을 느끼고, 봉사도 밖에서 보는 것처럼 성심으로 하지 않았고, 각종 명분으로 봉사금만 강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확한 때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로타리코리아지에 게재된 Bomar RI회장의 기고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1979년 3H사업의 일환으로 필리핀에 가서 소아마비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적에 내 바지를 잡아당기는 어린 아이가 있어 내려다보았다. 10살쯤 된 소아마비에 걸린 여자아이가 울면서 “로타리 아저씨 정말로 고맙습니다. 내 동생이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도록 약을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울먹었다.

우는 아이의 눈동자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는 순간 나는 앞으로 이런 천진난만한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봉사해

야겠다고 결심했다’는 Bomar회장의 감동적인 기고문을 읽는 순간 “그래 이것이 바로 봉사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자기 동생이 소아마비에 걸리지 않도록 약을 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눈물이지만, 그 속에는 그 아이가 가졌던 고통과 아픔의 눈물이고, 건강한 자기 친구들처럼 자유스럽게 활동하지 못한 한(恨)의 눈물이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 눈에서 눈물이 나지 않도록 하는 일이 진정한 봉사라는 생각이 들자 지금까지 가졌던 로타리에 대한 회의(懷疑)는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로타리의 봉사는 초아의 봉사인데 나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으로 로타리에 참여했기에 로타리가 싫어지고, 미워하게 된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품었던 로타리에 대한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되고, 미온적인 마음은 적극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봉사의 참의미를 모른 채 로타리에 열심히 참석하지 않으면 오래지 않아 로타리를 탈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의 참의미를 깨닫지 못했더라면 저도 영영 로타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계속 봉사를 하며 로타리에 머문 것이 감사합니다.